

미국 마리나시와 자매결연

이순택 남원 부시장·마리나 시장 등 30여명 참석…문화·미래산업 교류 위해

남원시는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리나시의 초청으로 현지에서 이순택 남원 부시장과 브루스 멜가도 마리나 시장을 비롯, 샌프란시스코 강현철 부총영사, 오영수 한인회장 등 ACOM(마리나시 아시안 공동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와 미래산업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도시 간 추후 상호 프로그램 실행 및 하나의 도시를 뛰어넘는 양 국가 사이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경제·과학기술 등 다양한 정보 공유 협력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마리나시가 처음 남원시에 자매결연 제의, 마리나 시는 인구 중 약 13%인 3천명의 한인교포가 거주, 그중에도 가장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남원의 매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리나시는 인구 2만 3천명으로 규모는 작지만 21세기 유망산업인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회사 조비 에비에이션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작지만 강한 도시로 불리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시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비

에비에이션 회사를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곳에서 이순택 남원 부시장은 “마리나시와 남원시의 역사적인 자매결연 첫걸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양 도시의 강점이 공유되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지난 13일, 최경식 시장을 비롯 시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산업 중심 스마트 남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남원시가 지난 13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혁신과 포용으

로 도약하는 미래 디지털 산업 중심의 스마트 남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중심의 미래도시 청사진을 밝혔다.

앞서 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화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정보화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남원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5대 정보화 정책목표로는 △지

속기능한 저탄소 청정 남원 △혁신적 문화관광 충주도시△공유를 통한 포용적 스마트 남원 △상생적 산업경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5개 정보화 서비스 모델 등 각각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25개 정보화 서비스 모델은 △스마트 융복합 태양광 주차장 △폐기물 AI 스마트 관리 시스템 △함께우 첨단 스마트 관광 체험실 △문화예술 디지털 이카이브 시스템 △함께하는 디지털 영재교육 △청년 창업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시민 맞춤형 인식케이블 서비스 △AI로봇 경로당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이며, 이번 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남원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하여 매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엔케이시스템 본부장
순창 고향사랑기부 쾌척

순창군은 최근 순창 출신(주) 엔케이시스템 권병우 본부장이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순창군 구립면 출신으로 지난 1992년 충남 부여군에서 설립된 LED 경관조명 설치 전문 기업(주)엔케이시스템의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권병우 본부장은 “내 고향 순창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멀리 서거나 순창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축산악취 개선 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축산악취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2021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55개 시군구가 신청하여 전라북도 평가(1차),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평가(2차)를 거쳐 최종 33개 시군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2023년도에도 축산 환경개선, 악취저감약품, 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과 장비 등 16개 사업 분야에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해 주요 거점지역 전기차 충전기 총 20대 설치

임실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임실군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2023년에 주요 거점지역에 전기차 충전기 총 20대를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충전량 100kW 뷰얼의 DC콤보 타입으로 차량 2대가 동시에 충전이 4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하다.

완속충전기는 7kW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에 따라 충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차면 50



대(급속 34대, 원속 67대)이다.

군은 공공시설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충족하고 주요 관광지 또는 거점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리를 확충하고 있다.

이로써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주차장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충전기 설치뿐만 아니라 물류반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내 진입 방해 행위 내연기관 차량 주차 등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계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메밀꽃피는 항아리, 사회적가치 우수 사회적기업상 수상

남원시는 지난 13일 관내 사회적기업인 (유)메밀꽃피는항아리가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가치 우수 사회적기업상(이하 기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항아리는 지난 6월 남원시 대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시범사업 ‘2023년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1호로 선정되고 올해 경영사를 누리게 되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가래떡 자동화 포장 설비 도입 등 인프라 개선을 통

여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사회적기업을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도지사 표창이 주어지고, 수상 기업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항아리는 지난 6월 남원시 대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시범사업 ‘2023년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1호로 선정되고 올해 경영사를 누리게 되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가래떡 자동화

포장 설비 도입 등 인프라 개선을 통

/남원=김기두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